



*사진 출처 : AI에서 생성한 이미지

numbers

vol. 351 | 2026.9.22.

[한국교회 다음세대 트렌드 2026]

6. 스쿨 처치: 학교기도모임

주일예배 매주 참석, 학교기도모임 참여 학생 95% vs 일반 기독교 학생 60%!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2026 추석: 차례/제사 계획
2. 배우자 부모 만족도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주일예배 매주 참석, 학교기도모임 참여 학생 95% vs 일반 기독교 학생 60%!

학생들이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학내에서 신앙적 정체성을 지켜내기란 쉽지 않다. 특히 세속적인 가치관과 치열한 경쟁이 우선시되는 학교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의 기준을 세우고 삶의 목적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적 정체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고민에 대해 최근 학교 현장에서 확산하고 있는 자발적 '학교기도모임(스쿨처치)'은 매우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한국교회 다음세대 트렌드 2026」에 따르면, 학교기도모임 참여 학생은 일반 기독교 학생 대비 주일예배 매주 참석률(95% vs 60%)이 현저히 높았으며, 교회 활동 참여 폭과 부모와의 신앙 소통 등 전 영역에서 월등히 적극적인 신앙 특성을 보였다. 학내 기도모임이 단순한 모임을 넘어 학생들의 신앙을 지탱하고 확장하는 강력한 동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넘버즈 351호>에서는 학교기도모임의 실태와 신앙적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다음세대 신앙 교육이 학교라는 삶의 현장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목회적 가능성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국교회 다음세대 트렌드 2026」 10개 키워드

- | | |
|--------------------|-------------------|
| 01. AI 네이티브: 딸각 세대 | 06. 소울 페어런트 |
| 02. 세계관의 충돌: 분리 신앙 | 07. 처치 홈 브릿지 |
| 03. 마이크로 워십 | 08. 유스 멘탈 케어 |
| 04. 또래 집단 | 09. 스쿨 처치 |
| 05. 인비저블 엑시트 | 10. 교회학교 패러다임 쉬프트 |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는 개신교를 기독교로 천주교는 가톨릭으로 기재합니다.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다음세대 트렌드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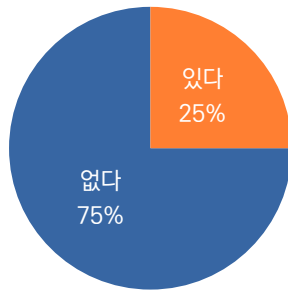
조사개요

구분	내 용				
	일반 학생	학부모	학교기도모임 참석 학생	사역자	교사
조사 대상	만 14세~19세 개신교인 학생 (교회 출석 학생)	만 14~19세 자녀를 둔 개신교인 부모 (교회 출석자)	만 14~19세 학교기도모임에 참석한 적 있는 개신교인 학생	한국교회 교회학교 담당 교역자 (사역자)	한국교회 교회학교 담당 교사
표본 규모	총 500명 (유효표본)	총 600명 (유효표본)	총 273명 (유효표본)	총 300명 (유효표본)	총 435명 (유효표본)
표본 추출	지역/성/학급별 비례할당 추출 (자녀기준)* 비례할당 추출은 ‘교육부, 한국교육개발 원’에서 발간한 2025년 교육통계연보 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추출함.		편의추출		
표본 오차	무작위추출을 전 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 서 ±4.4%p	무작위추출을 전 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 서 ±4.0%p	-		
조사 방법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이메일을 통해 URL발송)		온라인 조사(이메일 및 카톡을 통해 URL발송)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20.0 for Windows로 분석함				
조사 기간	2026년 01월 22일~02월 06일		2026년 01월 23일~02월 20일	2026년 01월 22일~02월 02일	2026년 01월 19일~02월 28일
조사 의뢰 기관	(사)꿈이 있는 미래(꿈미) / 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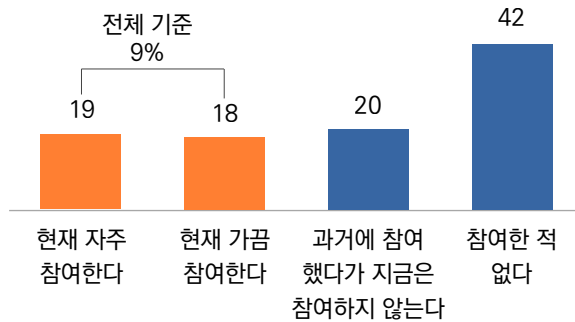
기독교 중고생 4명 중 1명, '우리 학교에 학교기도모임 있다'!

- 교회 출석 중고생에게 재학 중인 학교에 학교기도모임이 있는지를 묻은 결과, 25%가 '있다'고 응답했다.
- 학교기도모임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가운데 37%는 현재 모임에 '자주 또는 가끔 참여'하고 있었다. 이를 전체 교회 출석 중고생 기준으로 환산하면 학교기도모임 참여율은 약 9% 수준이다.

[그림] 학교 내 학교기도모임 운영 여부
(교회 출석 중고생, N=500)



[그림] 학교기도모임 참여도 (학교기도모임이 있는 경우, N=12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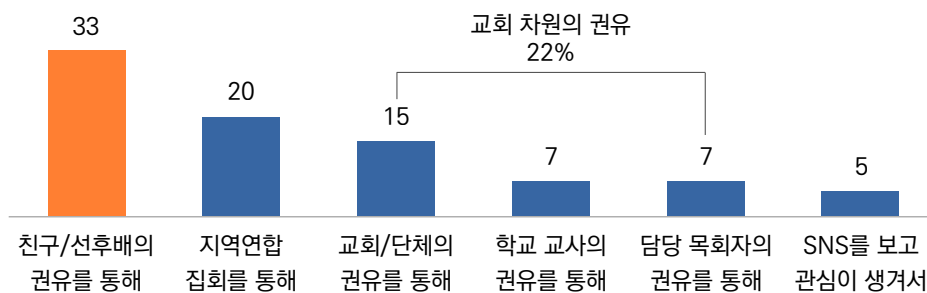


Note) 학교기도모임 정의 : 중고등학생들이 공식적인 동아리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혹은 학교 간 연합으로 크리스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기도 혹은 성경공부를 하는 모임

학교기도모임 참여 계기 1위, 친구/선후배 권유!

- 현재 학교기도모임 참석 중고생의 참여 계기로는 '친구/선후배의 권유'가 33%로 1위를 차지했다.
- 이와 함께 '교회/단체의 권유'(15%), '담당 목회자 권유'(7%)와 같은 교회 차원의 권유(22%)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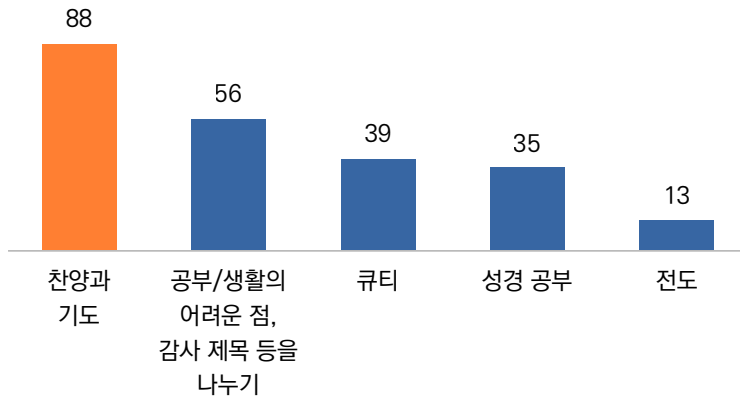
[그림] 학교기도모임 참여 계기 (현재 학교기도모임 참석 중고생, N=228, 상위 6개, %)



학교기도모임 참석 학생 절반 이상(56%), ‘고민과 감사 제목’ 나눈다!

- 학교기도모임에서는 ‘찬양과 기도’(88%)를 기본적으로 주 활동으로 하는 가운데 ‘고민과 감사 제목’(56%)도 많이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학내 기도모임이 찬양과 기도뿐 아니라 학생들이 서로의 고민과 일상을 나누는 신앙적 교제와 정서적 지지 공간으로도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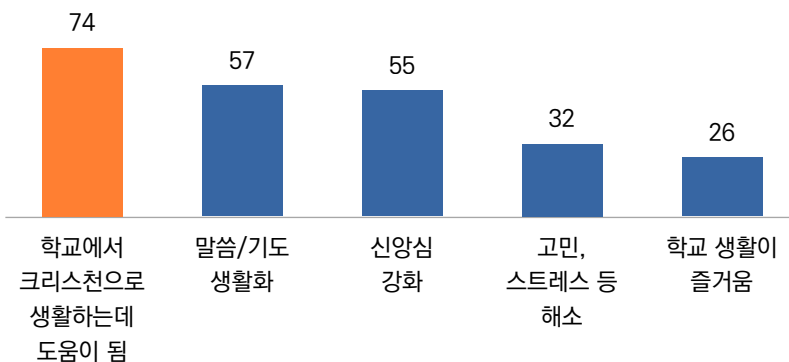
[그림] 학교기도모임 활동 내용 (현재 학교기도모임 참석 중고생, N=228, 상위 5개, 중복응답, %)



학교기도모임 효과 1위, ‘학교 내 크리스천 생활에 도움’ 74%!

- 학교기도모임의 유익은 무엇일까? 당연히 ‘크리스천으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는’(74%) 등 신앙적 유익이 가장 컸다.
- 하지만 일상생활에서의 유익(고민, 스트레스 등 해소, 학교 생활 즐거움)도 적지 않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학교기도모임 참여 효과(유익성) (현재 학교기도모임 참석 중고생, N=228, 상위 5개, 중복응답, %)



주일예배 매주 참석, 학교기도모임 참여 학생 95% vs 일반 기독교 학생 60%!

- 학교기도모임에 참여하는 학생은 거의 모두(95%) 매주 주일예배에 참석하는 반면에, 일반 기독교 학생은 60%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였다.
- 학내 기도모임 참여 경험이 개인의 정기적인 예배 생활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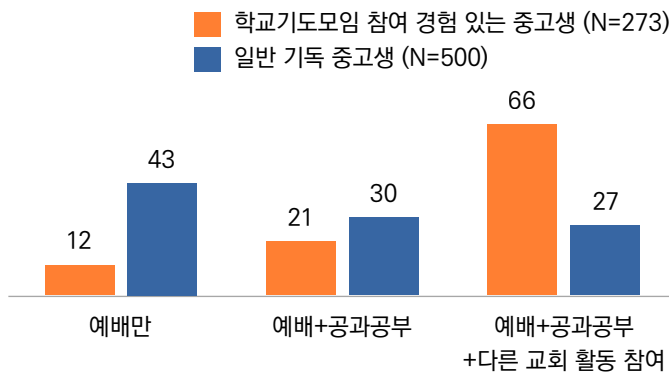
[그림] 주일 예배 매주 참석 비율 (학교기도모임 참여 경험 있는 중고생 vs 일반 기독교 중고생, %)



학교기도모임 참여 학생, 교회 활동 참여 폭도 더 넓어!

- 학교기도모임 참여 학생은 '예배와 공과공부 외 다른 활동까지 참여한다'는 응답이 66%로 가장 높았다. 반면 일반 기독교 학생은 '예배만 드린다'(43%)는 비율이 가장 높아, 두 집단 간 교회 활동 참여 폭에 있어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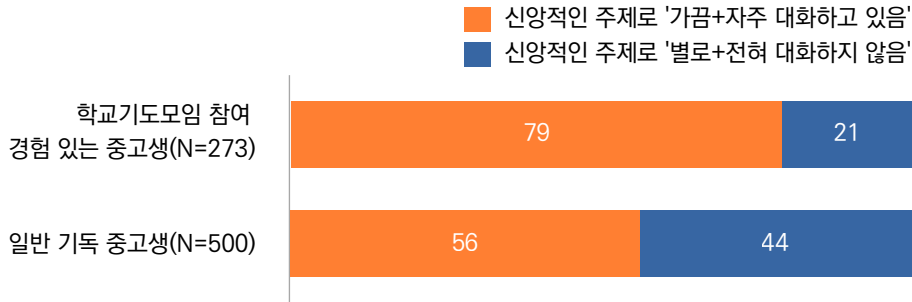
[그림] 주일 교회 활동 참여 형태 (학교기도모임 참여 경험 있는 중고생 vs 일반 기독교 중고생, %)



학교기도모임 참여 학생, 부모와 신앙 대화 더 활발!

- 학교기도모임 참여 학생은 10명 중 8명꼴인 79%가 부모와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기독교 학생(56%)보다 23%p 높은 결과이다.
- 이는 부모와의 신앙적 소통이 활발한 학생일수록 학교기도모임 참여율이 높거나, 모임 참여 경험이 가정 내 신앙 대화로 연결되는 등 가정 내 신앙 소통과 학교기도모임 참여 간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부모와의 신앙 대화 (학교기도모임 참여 경험 있는 학생 vs 일반 기독교 학생, 4점 척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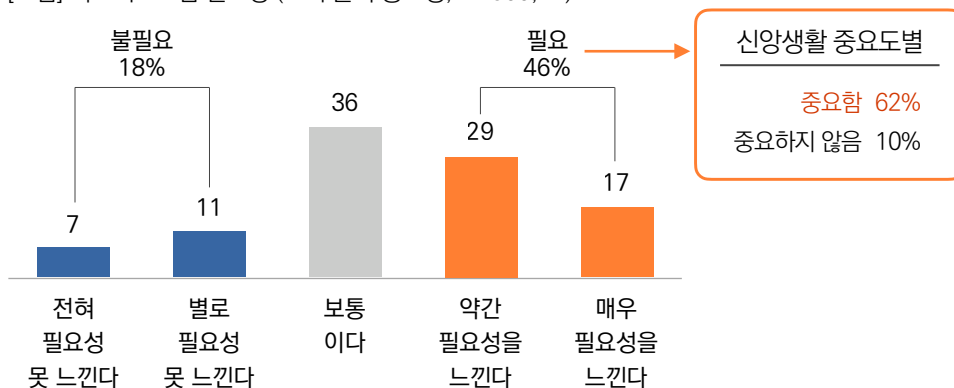
03

[학교기도모임 필요성과 전망]

기독교 중고생 절반 가까이(46%), 학교기도모임 '필요하다'!

- 학교기도모임의 효과(유익성)이 큰데, 그렇다면 일반 기독교 중고생들은 학교기도모임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교회 출석 중고생 가운데 학교기도모임이 '필요하다'(46%)는 응답이 '불필요하다'(18%)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높아서 학교기도모임의 확산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특히 신앙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는 학생일수록 기도모임 필요성에 더 높게 공감하고 있었다(신앙생활 중요 62%, 중요하지 않음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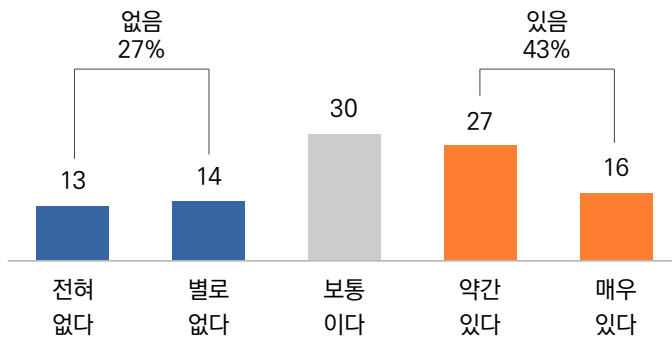
[그림] 학교기도모임 필요성 (교회 출석 중고생, N=500, %)



기독교 중고생 43%, 학교기도모임 ‘참여 의향 있다’!

- 뿐만 아니라 교회 출석 중고생 가운데 43%가 학교기도모임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성을 느끼는 학생 거의 대부분이 참여 의향을 보일만큼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 한편, 유보적 집단의 비중도 30%로 적지 않았는데, 이들도 설득 여하에 따라 참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학교 기도모임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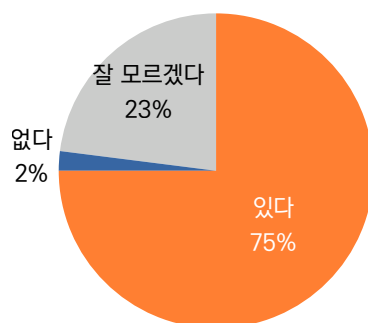
[그림] 학교기도모임 참여 의향 (교회 출석 중고생, N=500, %)



학교기도모임 참석자 4명 중 3명, ‘성인 되어도 자발적 기도모임 지속할 것’!

- 현재 학교기도모임을 하는 학생 4명 중 3명인 75%는 성인이 된 후에도 자발적 기도모임을 지속하겠다는 의향을 보였다.
- 이러한 결과는 학교기도모임을 통해 학생들은 자발적 크리스천 모임이 삶의 현장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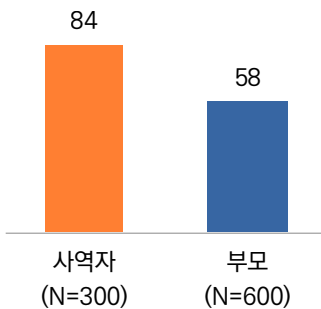
[그림] 성인이 된 후 자발적 기도모임 지속 의향
(현재 학교기도모임 참석 중고생, N=228)



학교기도모임, 사역자 84%·부모 58% ‘긍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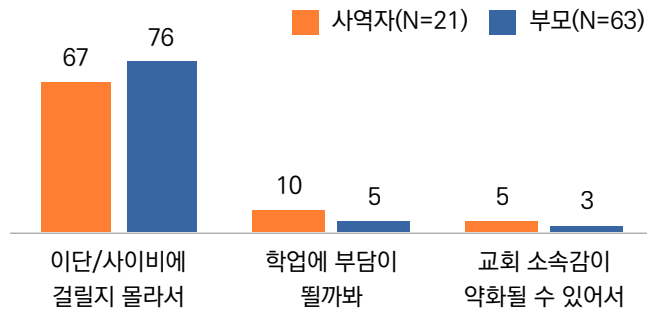
- 학교기도모임에 대해 사역자와 부모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특히 사역자의 긍정률(84%)이 부모(58%)보다 훨씬 높았다.
- 한편, 기도모임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사역자(67%)와 부모(76%) 모두 ‘이단/사이비 우려’가 가장 컸다.

[그림] 학교기도모임 평가 ‘긍정적이다’ 비율*
(매우+약간 긍정적, %)



*5점 척도

[그림] 학교기도모임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학교기도모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역자/부모, 사역자 기준 상위 3개, %)



이번호 요약

1. 기독 중고생 4명 중 1명, '우리 학교에 학교기도모임 있다!'

교회 출석 중고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 학교기도모임이 운영되는 비율은 25%였다.

2. 학교기도모임 참석 학생 절반 이상(56%), '고민과 감사 제목' 나눈다!

학교기도모임에서는 '찬양과 기도'(88%)를 기본적으로 주 활동으로 하는 가운데 '고민과 감사 제목'(56%)도 많이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주일예배 매주 참석, 학교기도모임 참여 학생 95% vs 일반 기독 학생 60%!

학교기도모임에 참여하는 학생은 거의 모두(95%) 매주 주일예배에 참석하는 반면에, 일반 기독 학생은 60%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였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적] 애들아, 학교를 부탁해 (생명의말씀사, 나도움 · 이정현 저)

관련 성경 구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목회 적용점

조사 결과, 학내 자발적 기도모임(스쿨 처치)에 참여하는 학생은 일반 기독 학생 대비 주일예배 매주 참석률(95% vs 60%)이 현저히 높고, 교회 활동 및 부모와의 신앙 소통 등 전 영역에서 매우 적극적인 신앙 특성을 보였다. 그러나 전체 기독 중고생 중 학교기도모임 참여율은 9%에 불과하며, 사역자와 부모의 60~70% 이상이 이단 및 사이비 유입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신앙 정체성을 지키고 학내 기도모임을 학생들의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 다음 두 가지를 제언한다.

첫째, 학교기도모임이 안정적이고 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참여 아이들 대상 검증·교육이 필요하다. 사역자(67%)와 부모(76%)가 모임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주요 이유가 이단/사이비 우려인 만큼, 교회는 학교기도모임 참여 학생 대상으로 '이단 관련 정보 및 교육 제공', '신앙 교리 지도' 등을 통해 이단 모임에 빠지지 않도록 검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지역 연합을 활용한 '학교기도모임 세우기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학생들의 모임 참여 계기로 '친구/선후배의 권유'(33%), '지역연합집회'(20%) 외에 '교회 차원의 권유'(22%) 비중도 상당하기에, 교회는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기도모임을 소개하고 참여를 권유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기도모임은 주일 교회학교의 연장선이자 신앙생활을 지탱하고 실천하는 또 다른 장인 셈이다.

또한, 교회와 학교기도모임이 협력하여 기도모임의 거점 역할을 뒷받침하는 지원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2026 추석: 차례/제사 계획



2. 배우자 부모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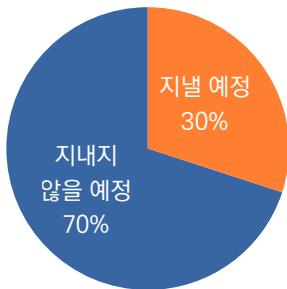


[2026 추석: 차례/제사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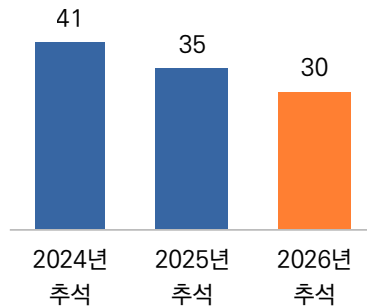
국민 30%, 올 추석에 ‘차례/제사 지낼 예정’!

- 이제 곧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올 추석에는 차례나 제사를 지내는 가정이 얼마나 될지 최근 발표된 ‘2026년 추석 명절 모임 및 일정 계획’(한국리서치)을 통해 살펴본다.
- 올해 추석에 차례나 제사를 ‘지낼 예정’이라는 응답은 30%로 나타났다. 2024년 추석 조사 당시 41%였던 차례·제사 계획 비율은 2025년 35%, 올해 30%로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올해 추석 차례/제사 계획 여부
(2026, 일반국민, N=1,000)



[그림] 차례/제사 ‘지낼 예정’ 비율 추이
(일반국민, 추석 명절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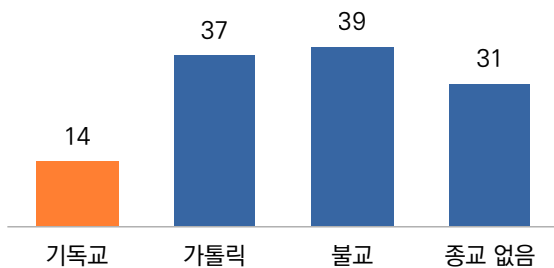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6년 추석 명절 모임 및 일정 계획, 2026.09.15.(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6.09.04.~09.07.)

기독교인 14%는 이번 추석 차례/제사 지낼 계획

- 종교인별 올 추석 차례/제사 계획을 살펴본 결과, ‘불교인’(39%)과 ‘천주교인’(37%)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기독교인은 14%로 조사됐다. 종교 유무와 관계없이 전 집단에서 ‘지내지 않을 예정’이 과반을 차지했다.

[그림] 종교인별 올해 추석 차례/제사 계획 (2026, 일반국민, N=1,000, ‘지낼 예정’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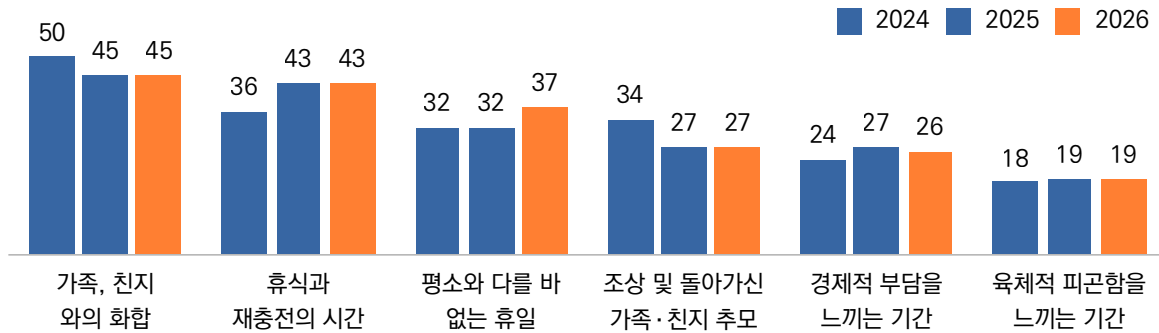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6년 추석 명절 모임 및 일정 계획, 2026.09.15.(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6.09.04.~09.07.)

추석의 의미, 공동체적 의미에서 개인적 의미로 변화

- 국민들이 생각하는 추석 명절의 의미는 '가족, 친지와의 화합'(45%)을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
- 그러나 2024년 이래 지난 3년의 추이를 보면 가족/친지와의 화합을 기대하는 공동체적 의미는 점점 약화되고, 휴식/평소 같은 휴일 등 개인적 의미로 축소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추석의 의미 (일반국민, N=1,000, 상위 6개, 중복응답, %)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6년 추석 명절 모임 및 일정 계획, 2026.09.15.(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6.09.04.~09.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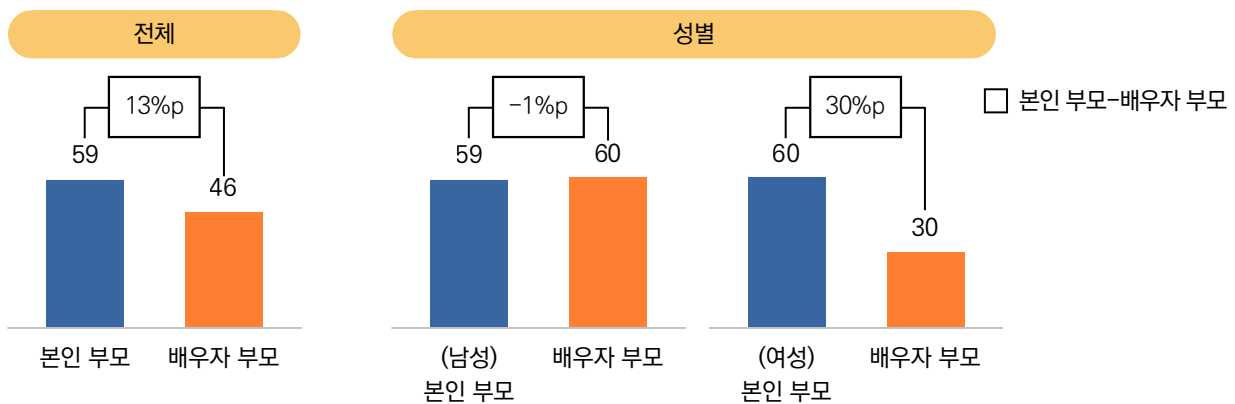


[배우자 부모 만족도]

배우자 부모 만족도, 남성은 양가 비슷 vs 여성은 시부모 만족도가 30%p 낮아

- 기혼자들의 양가 부모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한국리서치)가 최근 발표돼 이를 살펴본다. 양가 부모가 모두 있는 기혼자 대상으로 본인/배우자 부모에 대한 관계 만족도(매우+약간 만족)를 각각 물은 결과, 친부모와의 관계 만족 비율은 59%,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에 만족하는 비율은 46%로, 친부모와 배우자 부모 관계 만족도 차이가 13%p 벌어졌다.
- 주목할 점은 성별 차이다. 남성은 본인 부모(59%)나 배우자 부모(60%)나 관계 만족도가 비슷한 데 반해, 여성은 본인(친정) 부모와의 관계에는 60%가 만족, 시부모와의 관계에서는 절반 정도인 30%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해 무려 30%p의 격차를 보였다.

[그림] 본인 부모/배우자 부모 관계 만족도 (2026, 기혼자 중 본인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가 모두 있는 사람, N=205, '매우+약간 만족한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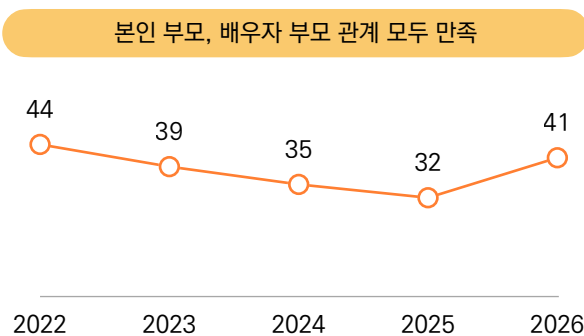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6 가족인식조사] 가족관계 만족도, 2026.09.15.(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6.05.08.~05.11.)
*5점 척도

양가 부모와의 관계 '모두 만족', 2022년 이후 4년 만에 상승 전환

- 양가 부모가 모두 한 명 이상 생존해 있는 기혼 남녀 중 '본인 부모와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모두 만족'하는 비율은 2026년 기준 41%였다. 2022년 44%에서 2025년 32%까지 3년 연속 지속되던 감소세를 끊고, 올해 9%p 반등하며 40%대를 회복했다.

[그림] 양가 부모와의 관계 '모두 만족' 비율 추이 (기혼자 중 본인 부모와 배우자 부모가 모두 한 명 이상 생존해 있는 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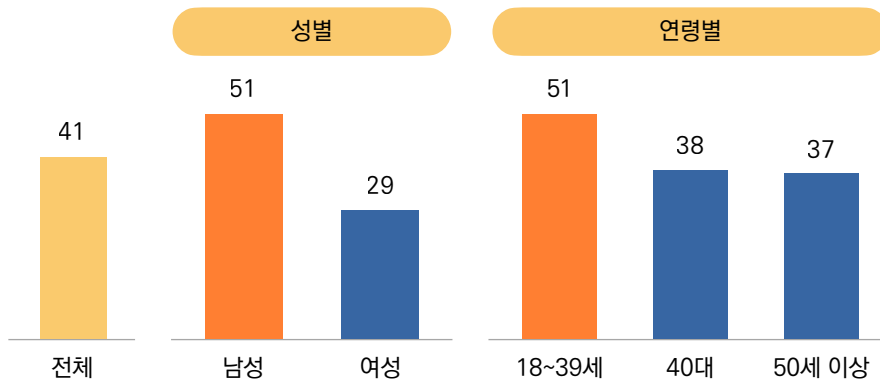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6 가족인식조사] 가족관계 만족도, 2026.09.15.(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6.05.08.~05.11.)

남성 · 2030세대일수록 양가 부모 관계 ‘모두 만족’ 비율 높아!

- 양가 부모 관계에 모두 만족하는 비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51%로 과반을 차지했지만, ‘여성’은 29%에 그쳤다.
- 연령별로는 ‘18~39세’(51%)가 40대(38%), 50세 이상(37%) 대비 상대적으로 양가 부모 모두와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성/연령별 양가 부모(본인+배우자 부모) 관계 ‘모두 만족’ 비율
(2026, 기혼자 중 본인 부모와 배우자 부모가 모두 한 명 이상 생존해 있는 자, N=250, %)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6 가족인식조사] 가족관계 만족도, 2026.09.15.(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6.05.08.~05.11.)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676호 \(2026년 9월 3주\)](#)

- 법무부 ·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적합 여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이재명 대통령 신뢰도 급하락, 경찰은 역대 최저… 2026 <시사IN> 신뢰도 조사](#)

시사IN_2026.9.17.

사회 일반

[한국인 어렸을 땐 입시 때문에, 나이 들면 아파서 '적자 인생'](#)

연합뉴스_2026.9.17.

[서울 중장년 88%가 '돌봄 중'…48%는 부모·자녀 양쪽 '이중돌봄'](#)

연합뉴스_2026.9.15.

[한국 성평등 수준 145개국 중 101위…“전 세계 완전한 성평등까지 120년”](#)

여성신문_2026.9.18.

[“혼자 애 키우느라 고생하네”…위로가 더 아팠다, 잔인한 명절](#)

중앙일보_2026.9.19.

[AI중독, 인류 퇴화 시작됐다…“내 글인데 기억이 안 나요” \[창간기획 시발 인류지능 퇴보\]](#)

중앙일보_2026.9.21.

[조현병 겪는 누나·무일푼 생활 2년…당신의 삶이라면?](#)

중앙일보_2026.9.21.

[\[소셜+\] 日 누리꾼도 반한 韓 독서 풍경…'책 삼매경' 청계천 가보니](#)

연합뉴스_2026.9.17.

아동 · 청소년 · 청년

[“학생이지만 일터로 출근”…직업계고 현장실습생 노동 사각지대 조명](#)

동아일보_2026.9.16.

[\[단독\]분노조절 못하는 10대들… 부모 폭행-협박 10년새 3배로](#)

동아일보_2026.9.21.

경제 · 기업

["한국 1인당 GDP 주요 29개국 중 13위…경제 체감도는 27위"](#)

연합뉴스_2026.9.17.

[기업 76.5% 추석에 나흘 쉰다…상여금 지급 61%로 하락](#)

연합뉴스_2026.9.17.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韓 기업 2분기 실적 ‘긱’…반도체 빼면 ‘글썸’ \[데이터로 보는 세상\]](#)

매일경제_2026.9.11.

["추석엔 이직 준비" 명절후 첫 월요일 이력서 등록 49% ↑](#)

연합뉴스_2026.9.21.

[\[기획\] 직장생활 규범에 대한 인식 - 무엇이 상식일까?](#)

중앙일보_2026.9.15.

국제

[美직장인 57% “AI가 쓴 글, 내가 썼다고 속였다”…직장에 번진 ‘AI 불신’](#)

중앙일보_2026.9.16.

["미국인 63%는 AI가 인류 멸망시킬 가능성 우려"](#)

연합뉴스_2026.9.16.

건강

[“90년대생 몸이 더 늙었다?”…젊은 암 늘어난 이유 \[노화설계\]](#)

동아일보_2026.9.17.

[심혈관질환 환자 운동은 '양날의 검'…많이 할수록 사망 ↓ 재발 ↑](#)

데이터숨_2026.9.17.

기독교 • 종교

[예배 공간, 빌려주고 빌리고… ‘플랫폼 통한 공유’ 활기](#)

국민일보_2026.9.21.

트렌드

[포켓몬 카드에 폭 빠진 30·40대…매물 등록·검색 폭증](#)

연합뉴스_2026.9.21.

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원로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민선영, 유영민, 김찬술, 한미경, 윤성훈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숭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넥스트목회교육원, (사)더조은세상, (주)디엔텍세븐컨설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정책연구소, 라잇나우미디어,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치움, 크리스찬타임스, 퓨처처치연구소(FCI),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 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후원 방법 (국내)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①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②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 없는 분은 아래 계좌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방법 (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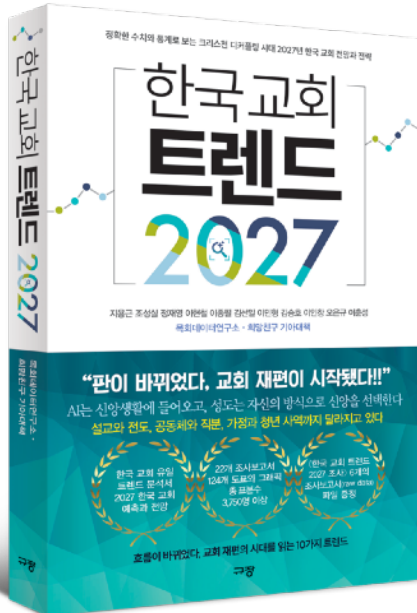
외국에서 페이팔을 통해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한국교회 트렌드 2027」 출판기념회 초대 및 책 구입 안내



1. 프롬프트 크리스천
2. 노 타이틀 성도
3. DIY 신앙
4. 아날로그 영성
5. 리얼리즘 설교
6. 전도 리포메이션
7. 느슨한 공동체
8. 대 은퇴 시대
9. 두 번째 가정
10. 고밀도 청년 사역

「한국교회 트렌드 2027」 출판기념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와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공동으로 준비한 이번 책을 오는 9월 말에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자리하셔서 한국교회의 트렌드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1) 일시 : 2026년 9월 28일(월) 10:00 ~ 11:30
- 2) 장소 : 서울YWCA 4층 대강당 (서울 중구 명동11길 20)
- 3) 프로그램 : 기념식, 주요 내용 발표 및 저자 소개, 질의 응답
- 4) 문의 : 02-322-0726

※ 주차장이 협소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비 본인 부담)

※ 오시는 분들(참석 신청자)에 한해 책 1권을 무료로 증정합니다.

[출판기념회 참석 신청 링크](#)

「한국교회 트렌드 2027」 책 구입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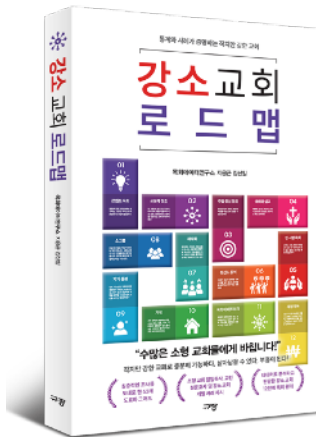
이번에 새롭게 펴낸 「한국교회 트렌드 2027」은 저희 연구소와 기아대책이 뜻을 모아 준비한 다섯 번째 시리즈입니다. 이번 책은 담임목사, 일반 성도, 청년부 사역자 등 한국교회의 다채로운 현장을 담은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집필되었고, 각 분야 전문가 10명이 집필에 참여하여, 한국교회가 주목해야 할 10가지 주제(트렌드)를 엄선해 담았습니다.

(책 구입 문의 : 02-322-0726, 유영민 팀장)

[책 구입 안내](#)

목회데이터연구소 출간 도서

※ 책 구입 문의 : 02-322-0726, 유영민 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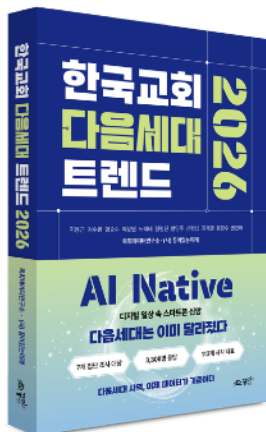
「강소교회 로드맵」 (출간일 : 2026.06.30.)

오늘날 한국 교회 다수를 차지하는 소형교회가 작지만 강력한 ‘강소교회’로 나아갈 실천적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소형교회 담임목사·교인 설문조사 데이터와 생생한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강소교회의 12가지 목회 원리를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책 구입 안내

책 소개 영상



「한국교회 다음세대 트렌드 2026」 (출간일 : 2026.05.20.)

((사)꿈이있는미래 공동 출간)

다음세대 사역의 10가지 주요 이슈들에 대해 국내 최초로 학생, 부모, 교사, 사역자, 담임목사 등 총 7개 집단(총 3,308명)을 동시에 다면 평가하여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한 책으로 다음세대 사역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책 구입 안내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의 담임목사, 성도를 총 1,320명 조사하여 각각의 특징을 통계적으로 규명하였습니다.

책 구입 안내

책 소개 영상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 5대 영역별(예배, 교육, 친교, 봉사, 선교)로 성도, 목회자, 청소년, 선교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를 통해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진단했습니다.

책 구입 안내

목회데이터연구소 공지



‘목회자님을 위한’ 소그룹 리더 온라인 양성 과정

라잇나우미디어에서 목회자님을 위한 소그룹 리더 양성 과정을 진행합니다.

- 1) 일정 : 2026년 9월 29일(화) 13:00~16:30
- 2) 대상 : 소그룹 리빌딩을 원하시는 목회자님, 기관의 리더님
- 3) 강사 : 우명훈소장(세바시연사 코치)
- 4) 장소 : Zoom(신청자에 한해 링크 발송)
- 5) 참가비 : 3만 5천원 (구독 교회는 2만원)
- 6) 신청/문의 : 1533-7104

[신청 링크](#)

연구소 소식. 다음 주 [넘버즈] 휴간 안내

다음 주(9월 29일) [넘버즈]는 5주 차(화요일 기준) 연구주간으로 한 주 쉽니다.